

야은 길재의 두 가지 표상 : 절의의 실천과 도통의 전승

김 용 헌

조선의 도학사에서 길재가 갖는 의미는 절의의 실천과 도통의 전승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길재가 조선 왕조에서 절의의 표상으로 자리매김 된 것은 그의 충절을 절의 또는 의리라는 주자학적 가치로 일반화하고, 이를 통해 조선 왕조의 기반을 굳건히 하려는 통치자들의 내밀한 의도와 무관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직, 낙향, 그리고 출사 거부로 이어지는 길재의 일관된 정치적 행보는 그가 일신의 안위와 영달보다는 절의의 가치를 더 존중했음을 말해 준다.

길재는 중종 시대에 이르러 정몽주의 학문을 이어받아 김숙자·김종직을 거쳐 김굉필에게 이어준 인물로 부각되었다. 이처럼 길재가 도통의 계보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은 기묘사림들이 정몽주로부터 시작되는 도통을 통해 자신들의 학문적 권위를 확보하기 위한 의도와 무관하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길재에서 김숙자를 거쳐 사람파로 이어지는 도학의 실체는 무엇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소학』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길재의 실천과 교육은 다분히 『소학』적 성격을 지녔고, 김숙자 또한 학생들에게 『소학』이 학문의 근본임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소학』 실천을 중시하는 인식은 김종직을 거치면서 사람들에게 광범위하게 확대되었고, 그 결과 『소학』 실천은 사람파의 실천적 정체성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된다. 따라서 길재의 도학이 김숙자와 김종직을 거쳐 김굉필로 이어지고 조광조에 이른다는 조선유학의 도통론이나 김굉필 이후

정봉과 박영으로 이어진다는 선산 지역 유학의 도통론은 근거가 없지 않다.

핵심 단어 : 길재, 김숙자, 김종직, 절의, 도통, 도학, 『소학』

I. 들어가는 말

길재吉再(1353~1419)는 자가 재보再父, 호가 야은治隱 또는 금오산인金烏山人으로, 경상도 선산부善山府의 속현인 해평海平 사람이다. 공민왕 2년(1353)에 선산 봉계리鳳溪里(현재의 구미시 고아읍 봉한리)에서 태어났다.¹⁾ 선산 지역에서는 예로부터 영남 선비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말이 있었을 만큼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었다.²⁾ 한충희의 연구에 의하면, 고려시대에 선산 출신으로 재상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 윤신준尹莘俊·윤석尹碩·김한충金漢忠 등 10여 명이나 되었으며, 조선 초기(태조~성종)에도 오식吳湜 등 13명의 당상관(그 중에서 11명은 중2품 이상)과 전가식田可植 등 30여명의 문과 급제자, 김치金峙·박서생朴瑞生·김종리金從理·김숙자金叔滋·김종직金宗直 등 성리학자가 배출되었다.³⁾

선산 지역의 선비와 인재들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조선 초기에 사

1) 吉再. 『治隱言行拾遺』 卷上. 「行狀」(朴瑞生). 14a. 길재의 생애에 대해서는 박서생이 쓴 「행장」에 의거하였다.

2) 김종직은 옛날부터 선산에는 선비가 많았음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선산엔 예로부터 선비가 많아서/ 영남의 반을 차지한다 하거니와/ 삼 년마다 수재를 논할 적이면/ 뛰어난 재사가 마을을 빛내었고/ 조정에서 높은 재능 발휘한 사람도/ 한두 사람뿐만이 아니었는데 …” 金宗直. 『佔畢齋集』 권14. 「書黃著作璘榮親詩卷」. 11a. “一善古多士, 號居嶺南半, 三年論秀時, 翹楚光里閭, 雲衢展驥足, 非惟一二筭 …”

3) 한충희. 1997. 「선산과 조선전기 성리학 및 사림파」. 『한국학논집』 24.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32쪽.

림과가 형성되고 도학道學이 정착되는 데 이 지역의 인물들이 큰 몫을 했다는 점이다. 우선 조선 주자학의 도통에 이름을 올린 길재(1353~1419)와 김숙자(1389~1456)가 이 지역 출신이다. 김종직(1431~1492)은 밀양에서 태어났지만 부친인 김숙자의 뜻을 이었으며, 그가 선산부사를 지낼 때 김굉필金宏弼·이승언李承彦·원개元槩·이철균李鐵均·곽승화郭承華·주창윤周允昌 등이 찾아와 여러 달 동안 공부하였다.⁴⁾ 사육신으로 유명한 하위지河緯地와 생육신 가운데 한 사람인 이맹전李孟專도 이 지역 출신인데, 이는 길재로부터 시작된 절의정신의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⁵⁾

길재가 조선의 도학사에서 갖는 의미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첫째는 길재가 조선 왕조 오백 년 동안 절의의 상징으로 존경을 받았다라는 측면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길재는 세종 때 간행된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의 「충신도忠臣圖」에 ‘길재의 곧은 절의’(吉再抗節)라는 제목으로 수록됨으로써 그 이후 불사이군의 절의를 지킨 충신으로 자리매김되었다. 둘째는 길재가 정몽주의 도학을 계승하여 후대에 전해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점이다. 길재가 고려 말에 귀향하여 강학을 하자 그의 문하에 김숙자·박서생朴瑞生·김치金峙 등 많은 학생들이 모여들었고, 결과적으로 길재에서 김숙자를 거쳐 김종직-김굉필-조광조로 이어지는 학문적 계보가 조선 유학의 도통道統으로 인정받았다.

절의의 상징과 도통의 전승이라는 길재의 사상사적 의미는 선산 지역의 유학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앞에서 본 것처럼 길재의 절의 정신은 세조의 왕위 찬탈 이후 하위지와 이맹전의 절의에서 재발견되며, 길재의 도학은 김종직과 김굉필을 거쳐 정봉鄭鵬(1467~1512)-박영朴英(1471~1540)으로 이어지면서 선산 지역 도학의 형성에 토양이 되었다. 이에 대해 황지

4) 金宗直. 『佔畢齋集』, 「年譜」, 14ab. “是歲仲夏, 金秀才宏弼, 李生員承彦, 元參奉槩, 李生員鐵均, 郭進士承華, 周秀才允昌, 會府之鄉校, 討論墳典, 就門下, 問辨數月矣.”

5) 김성우. 2009. 「15세기 중·후반~16세기 도학운동의 전개와 송당학파의 활동」. 『역사학보』 202. 역사학회. 2쪽.

원은 길재가 낙향하여 후진을 양성한 “이후 선산 일대는 절의정신과 도덕적 수양을 중시하는 사림과의 발상지이자 도통의 중심이 되었으며”라고 하였다.⁶⁾ 이 논문은 절의의 상징과 도통의 전승이라는 길재의 표상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그 표상의 현실적인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다.

II. 길재에 대한 역사적 평가

1. 절의의 상징

길재는 공양왕 2년(1390) 봄에 사직을 한 후 선산으로 귀향했고, 조선 왕조에 들어서도 고려의 신하임을 자처하면서 정종이 내린 관직을 정중하게 거절하였다. 한 마디로 길재는 조선 왕조에 비협조적인 인물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조선왕조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절개를 지킨 선비로 인정받았다. 길재에 대한 조선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가 제출된 것은 정종 2년(1400)이다. 이때 정종은 길재가 자신이 내린 벼슬을 거절하자 권근에게 “길재가 절개를 굳게 지켜 벼슬을 하지 않는다”면서 대처 방법을 물었고, 권근은 “선비가 진실로 뜻이 있으면, 빼앗을 수 없습니다”라고 답하였다.⁷⁾

태종 1년(1401)에 권근은 태종에게 6조목의 수습책을 건의하면서 정

6) 황지원. 2014. 「구미(선산) 지역 유학의 전개와 특징」. 『민족문화논총』 58.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761쪽.

7) 『정중실록』 권5. 정종 2년 7월 2일(을축). “明日御經筵, 問權近曰, 吉再抗節不仕, 不識古有如此者, 何以處之? 近對曰, … 土固有志, 不可奪也. 上乃許歸本郡, 令復其家.”

몽주鄭夢周·김약항金若恒·길재 등 절의를 지킨 사람들을 선양해야 한다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전 주서 길재는 절개를 지킨 선비입니다. ... 길재는 일찍이 거짓 왕조(위조(僞朝))에 벼슬했다는 이유로 스스로 오늘에 신하 노릇을 하지 않으려고 하자 전하께서는 그가 시골로 돌아가는 것을 들어주심으로써 그 뜻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길재가 지키는 바가 비록 중도(中道)에서 벗어나고 바름을 잃었다고는 하지만, 나라가 바뀐 뒤에도 오히려 예전 임금을 위해 절개를 지켜서 관작과 봉록을 사양한 사람은 오직 이 한 사람뿐입니다. 어찌 높은 선비가 아니겠습니까.⁸⁾

권근은 출사를 거부한 길재의 처신에 대해 중도를 벗어났다고 지적하면서도 그를 고절지사(苦節之士), 즉 옛 임금을 위해 절개를 지킨 선비라고 규정하였다. 그렇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길재를 절의의 표상으로 떠받든 이유는 무엇일까? 권근은 그 이유를 “나라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절의가 있는 선비를 선양하여 만세의 강상(綱常)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군주가 의(義)를 들어서 창업할 때에는 따르지 않는 자를 벌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대업이 이미 정해져서 수성(守成)할 때에는 반드시 절의를 다한 전대의 신하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후세에 신하의 절의를 장려하여 결과적으로 만세의 강상을 굳건히 하기 위한 것이다.⁹⁾

길재에 대한 이와 같은 평가는 당시 새 왕조의 학자 관료들 사이에서

8) 『태종실록』 권1. 태종 1년 1월 14일(갑술). “前注書吉再, 苦節之士. 殿下在東宮, 不忘舊要, 且嘉篤孝, 白於上王, 授以爵命, 再乃自以嘗仕僞朝, 不欲臣於今日. 殿下聽還鄉里, 使遂其志. 再之所守, 雖曰過中失正, 然在革命之後, 尙爲舊君守節, 能辭爵祿者, 惟此一人而已, 豈非高士哉!”

9) 『태종실록』 권1. 태종 1년 1월 14일(갑술). “自古有國家者, 必褒節義之士, 所以固萬世之綱常也. 王者學義創業之時, 人之附我者賞之, 不附者罪之, 固其宜也. 及大業既定, 守成之時, 則必賞盡節前代之臣, 亡者追贈, 存者徵用, 竝加旌賞, 以勸後世人臣之節, 此古今之通義也.”

폭넓게 받아들여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태종 3년(1403)에 개국공신이자 당시 경상감사였던 남재南在(1351~1419)를 비롯해 하륜河崙(1347~1416)·변계량卞季良(1369~1430)·박연朴堧(1378~1458) 등 당시 여러 명사와 선비들이 길재의 절의와 효행을 찬미하는 시를 지었다.¹⁰⁾ 이 시들을 모아 태종 5년(1405) 가을에 만든 시집의 서문에서 권근은 길재에 대해 “고려 오백 년 동안 교화를 배양하여 선비의 풍모를 장려한 효과가 선생의 한 몸에 모였고 조선 억만 년 동안 강상을 세워 신하의 절개를 밝힐 근본이 선생의 한 몸에 마련되었다”¹¹⁾고 하였다. 여기서 길재는 더 이상 고려만의 신하가 아니라 조선을 영원히 지탱할 신하, 즉 절의라는 도학의 보편적 가치를 몸소 구현한 인물로 전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정종실록』에서 사신史臣 홍여강洪汝剛은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열녀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길재를 충렬忠烈의 선비라고 규정하였다.¹²⁾ 사관史官이 길재를 충렬忠烈의 선비라고 규정한 것은 길재에게 부여된, 절의를 지킨 선비라는 인식이 적어도 유교적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일반적이었음을 말해준다. 태종 역시 “길재는 불러도 오지 않으며 두 임금을 섬기지 않겠다는 뜻을 굳게 지키니, 신하의 절개는 진실로 이렇게 해야만 될 것이다”¹³⁾라고 하여 길재에 대해 신하의 절개

10) 이 시들은 吉再. 『治隱言行拾遺』 卷下. 「讚詠諸詩」에 수록되어 있다.

11) 吉再. 『治隱言行拾遺』 卷下. 「讚詠諸詩」, 4a ; 吉再. 『治隱言行拾遺』 卷上. 「行狀」(朴瑞生). 18a. “乙酉秋, 陽村先生題龜菴諸公所賦詩卷, 叙其本末. 其略曰, 有高麗五百年培養教化, 以勵士風之效, 萃先生之一身而收之, 有朝鮮億萬年扶植綱常, 以明臣節之本, 自先生之一身而基之, 其有功於名教甚大, 而我朝之德, 亦由先生而益彰, 所以激百代之高風, 存萬世之大防也.”

12) 『정종실록』 권5. 정종 2년 7월 2일(을축). “史臣洪汝剛曰, 或以爲辛氏既非正統, 注書亦非達官, 再宜仕於盛朝, 不須拘於小節. 愚謂忠臣不事二君, 烈女不更二夫. 辛氏雖僞, 既委質以爲臣, 注書雖微, 亦從仕而食祿, 安得以僞朝微官, 而虧吾臣子之分乎? 且節義, 天地之常經, 莫不受之於有生之初矣, 然其誘於功利, 淫於爵祿, 不能皆有以全之也. 辛氏之亡已久, 無子孫之可托矣. 再也能爲舊君, 守其節義, 等功名於浮雲, 視爵祿於弊屣, 若將終身於草野, 亦可謂忠烈之士矣.”

13) 『세종실록』 권2. 세종 즉위년 11월 2일(무신). “上王曰, … 吉再徵召不來, 固守不事二君

를 지킨 사람으로 평가하였다.

길재 추송 작업이 구체화된 것은 세종 때이다. 세종 8년(1426) 12월에 세종은 길재에게 통정대부通政大夫 사간원좌사간대부司諫院左司諫大夫 지제교知製敎 겸 춘추관편수관春秋館編修官을 추증追贈하였다.¹⁴⁾ 그 후 세종은 “길재가 절개를 지켜 변심하지 않고 상소해서 물러가기를 청했다”는 이유로 그를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의 「충신도忠臣圖」에 넣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길재는 ‘길재의 굳은 절의’(吉再抗節)이라는 제목으로 정몽주와 더불어 「충신도」에 수록되었다. 『삼강행실도』는 세종 16년(1434) 직제학直提學 설순설循 등이 왕명에 따라 삼강 즉 군신·부자·부부 사이의 인륜에 모범이 될 만한 사례를 뽑아서 그림을 곁들여 소개한 책으로 유교 윤리를 널리 보급할 목적으로 만든 일종의 도덕 교과서이다.¹⁵⁾ 따라서 길재가 『삼강행실도』에 수록되었다는 것은 그가 조선 사회에서 절의 실천의 모범으로 자리매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⁶⁾ 그 후 길재의 절의는 성종 때 편찬된 관찬 지리서인 『여지승람輿地勝覽』,¹⁷⁾ 성현成僞의 『용재총화慵齋叢話』,¹⁸⁾ 유희춘柳希春의 『속몽구續蒙求』,¹⁹⁾ 유계俞啓의 『여사제강麗史提綱』,²⁰⁾ 홍여하洪汝河의 『휘찬려사彙纂麗史』²¹⁾ 등에 반복적으로 소개된다.

길재가 지닌 절의의 이미지는 이황李滉의 시에서도 드러난다. 이황은 젊은 시절 길재의 고향인 선산의 봉계를 지나면서 한 편의 시를 지었는데, 다음이 그 한 대목이다.

之志, 臣節固當爾也.”

14) 『세종실록』 권34. 세종 8년 12월 3일(임술).

15) 이 책에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충신·효자·열녀가 각각 35명씩, 모두 105명이 모범 사례로 수록되어 있다.

16) 김용현. 2015. 『야은 길재, 불사이군의 충절』. 예문서원. 160~162쪽.

17) 吉再. 『治隱言行拾遺』 卷中. 「輿地勝覽」(盧思慎·梁誠之·姜希孟). 3ab.

18) 吉再. 『治隱言行拾遺』 卷中. 「慵齋叢話」(成僞). 4b~5a.

19) 吉再. 『治隱言行拾遺』 卷中. 「續蒙求」(柳希春). 5a~6a.

20) 吉再. 『治隱續集』 卷下. 「麗史提綱」(俞啓). 22b~23a.

21) 吉再. 『治隱續集』 卷下. 「彙纂麗史儒學傳」(洪汝河). 23b~26b.

대의大義를 꺾을 수 없었으니/ 어찌 세상을 저버렸다고 하리오./ 천 년 전
엄자릉嚴子陵의 기풍이/ 다시금 이 땅을 울렸다네./ 나라를 부지하지는 못했
으나/ 곧은 절개 영원히 굳건하네.²²⁾

한편 조선의 역대 군주들도 길재의 절의 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선양하
였다. 심지어는 연산군조차도 홍문관 관원들에게 길재의 높은 절개는 두
마음이 없었다는 뜻으로 시를 지어 바치도록 했을 정도이다.²³⁾ 한편 숙종
은 숙종 33년(1707) 가을에 길재의 절의를 생각하여 특별히 오언구五言
句를 손수 지었으며,²⁴⁾ 순조는 이 시에 차운하여 역시 길재의 절의를 기
리는 시를 직접 지었다.²⁵⁾ 영조는 길재에게 충절忠節이라는 시호를 내렸
으며,²⁶⁾ 길재를 가리켜 “어찌 고려만의 충신이겠는가”라면서 제문을 지
어 보냈다.²⁷⁾ 이상으로 볼 때 길재는 조선의 지식인들과 통치자들에게 고
려의 충신을 넘어 도학의 보편적 가치인 절의를 지킨 사람으로 평가되었
고, 그렇기 때문에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절의의 상징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

22) 吉再. 『治隱言行拾遺』 卷下. 「過先生閭」(李滉). 12a. “... 大義不可撓, 豈曰辭塵寔. 千載
釣臺風, 再使激東韓. 扶持已無及, 植立永堅完. ...”

23) 『연산군일기』 권51. 연산 9년 11월 10일(계유). “傳曰, 以吉再凜節, 無二心之意, 令弘
文館官員製詩以進.”

24) 吉再. 『治隱續集』 卷中. 「御製詩」(肅宗). 2a. “肅廟丁亥秋, 念先生節義, 特製五言絕句,
手寫下于儀賓寺. 上又命領議政崔錫鼎, 吏曹判書趙相愚賡進, 因命後孫殿中君震龜除清河
縣監. 歸臥烏山下, 清風比子陵, 聖主成其美, 勸人節義興.”

25) 吉再. 『治隱續集』 卷中. 「御製詩」(純祖). 4a. “御製詩. 純祖次肅廟御製韻. 司諫貞忠節,
亭亭似子陵, 聖朝崇彰烈, 自此士林興.”

26) 『영조실록』 권54. 영조 17년 8월 20일(임자).

27) 『영조실록』 권110. 영조 44년 5월 10일(정유). “敎曰, 高麗門下注書吉再事, 曾見三綱
行實, 而於聖祖, 同學于成均館, 兩次陳章, 心亘宇宙. 兩聖之特許所請, 樹風曠世之盛德,
幾百載之下, 不覺仰欽. 豈特前朝忠臣? 寔我獻陵太學故舊也. 今日聞此, 豈無表意? 遣禮
官, 特爲致祭於金烏書院. 製下祭文, 奉祀孫, 令該曹調用, 文集亦令入之.”

2. 도통의 전승

조선 초기부터 길재는 유교적 가치인 절의를 지킨 선비로 부각되었지만, 조선 유학사에서 길재가 갖는 더 중요한 의미는 정몽주에서 김굉필로 이어지는 도통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이다. 중종 시대에 접어들어 조광조를 위시한 기묘사람들은 자신들의 학문적·이념적 정체성을 공자에서 주자로 이어지는 도학, 즉 주자학으로 설정하고, 우리나라 도학의 계보가 정몽주-길재-김숙자-김종직-김굉필을 거쳐 자신들에게 이어진다고 상정하였다. 물론 무오·갑자·기묘·을사사화로 이어지는 사화로 인해 도학의 이념을 실현하려는 사람과의 학문적·정치적 이상이 거듭 좌절되었지만, 선조 시대 이래로 사람들이 정국을 주도하면서 도학의 이념이 실질적으로 공식화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길재는 조선의 도학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사람과의 학문적 계보에 길재의 이름을 처음 올린 사람은 조광조이다. 조광조는 중종 13년(1518) 4월 어느 날 경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종직은 처음에 길재에게 배웠는데, 길재는 곧 정몽주의 문인입니다. 그러므로 김종직이 전한 학문은 진실로 그 근원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조금이라도 선행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의 문하에서 공부를 했습니다.²⁸⁾

이 언급은 이승건李承健이 김종직·김일손金駟孫 등이 당黨을 만든다고 비판한 것²⁹⁾에 대한 반박으로 나온 것이다. 이 언급에 이어 조광조는

28) 『중종실록』 권32. 중종 13년 4월 28일(정유). “金宗直初受業於吉再, 再卽鄭夢周之門人也. 宗直傳業淵源, 固有自矣, 在今稍知爲善者, 受業於其門者也. 其時善人, 以類相從, 自然道同, 互爲推薦, 固也, 而承健書曰, 互相吹噓, 自作一黨. 所謂黨者, 營身謀利, 相與爲徒, 則曰黨, 可也, 如金宗直之徒, 公心協力, 相與爲善, 而承健所書如此, 痛矣.”

29) 『중종실록』 권32. 중종 13년 4월 28일(정유). “承健爲翰林時, 嫉金宗直金駟孫之徒之所爲, 書于國史曰, 南方之人, 師譽弟子, 弟子譽師, 互相推許, 自作一黨云.”

김종직과 그를 따르던 사람에 대해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모인 당이 아니라 공평한 마음으로 선행을 하려는 사람들이라고 규정하였다. 조광조가 김종직의 학문적 연원을 길재를 거쳐 정몽주에 소급시킨 것은 김종직의 학문적 족보를 통해 그의 학문에 정통성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그와 그의 무리가 선한 사람임을 보이기 위한 것이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조광조가 김종직의 학문적 연원을 언급한 의도는 자신을 포함한 사림파의 학문적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과 무관하지 않다. 조광조는 위 언급에 앞서 “지금의 선비들이 그의 풍모를 듣고 선행을 하려는 자가 또한 많으니, 이는 모두 김굉필의 힘입니다”³⁰⁾라고 하여 김굉필과 그를 따르는 지금의 선비들에 대해 언급하였다. 여기서 지금의 선비들이란 조광조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을 지칭한다. 조광조의 위 언급은 자신들의 학문이 정몽주-길재-김종직-김굉필을 거쳐 자신들에게 이어진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셈이다. 이 당시 사람들이 김굉필의 학문적 연원을 정몽주로 설정한 것은 성균 생원 권전權碩 등의 상소문에 보인다. 이 글에서 권전은 “도道를 자기 임무를 삼아 은연히 멀리 정몽주의 계통을 잇고 깊이 염濂·락洛의 연원을 찾은 자는 김굉필이 그 사람입니다.”³¹⁾라고 하였다. 정리하자면, 중종 시대에 조광조 일파는 정몽주-길재-김종직-김굉필로 이어지는 학문적 계보를 만들었고, 그 학문적 계보의 핵심 내용을 도道라고 규정하였다. 이로써 길재는 단순히 절의를 지킨 사람이 아니라 정몽주의 학문을 이어받아 김종직, 나아가 조광조 일파에게 전해 준 도통의 전승자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실제로 조광조가 도통에 이름을 올린 것은 중종 말엽이다. 중종 39년(1544) 5월 성균 생원 신백령辛百齡 등은 조광조의 신원을 요청하는 상

30) 『중종실록』 권32. 중종 13년 4월 28일(정유). “光祖曰, 如金宏弼, 雖不顯仕於一時, 然今之士子聞其風, 而欲爲善者亦多, 此皆宏弼之力也.”

31) 『중종실록』 권29. 중종 12년 8월 7일(경술). “其以道自任, 隱然遠紹夢周之緒, 深究濂洛之源者, 有若金宏弼其人也.”

소에서 “우리의 도가 동방으로 온 지 오래”라면서 “조광조는 김굉필에게서 얻었고, 김굉필은 김종직에게서 얻었고, 김종직은 전조의 신하 길재에게서 얻었고, 길재는 정몽주에게서 얻었습니다”라고 하였다.³²⁾ 그리고 그 이듬해인 인종 1년(1545) 3월 성균관 진사 박근朴謹 등이 역시 조광조의 신원을 요청하는 상소에서 길재와 김종직 사이에 김숙자를 넣음으로써 정몽주-길재-김숙자-김종직-김굉필-조광조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도통이 확립되었다.³³⁾ 그 이후 기대승奇大升은 경연에서 우리나라의 학문이 전해진 순서로 위의 도통을 재확인하면서, “그 이후로 유사儒士들이 성현의 학문을 하고자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³⁴⁾

물론 그 학문적 수수관계에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길재가 정몽주를 계승했다는 것에 대한 의문이다. 실제로 길재의 「행장」에 따르면 길재가 스승으로 여기고 따른 사람은 박분과 권근이다. 하지만 그 「행장」에는 길재가 18세 때 상경한 이후 “이색·정몽주·권근 등 여러 선생의 문하에 드나들면서 비로소 높은 수준의 학문을 들었다”³⁵⁾는 대목이 나온다. 길재가 22세 때 국자감에 들어갔을 때 정몽주와 권근이 사업司業으로 있었기 때문에 길재가 정몽주에게서 배웠다는 것은 허언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정몽주·박천익朴天翊·길재 세 사람의 관계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박천익은 이른바 9은九隱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의 화상畫像을 보고 정몽주가 시를 짓자 박천익이 그 시에 다시 차운하여 시를

32) 『증중실록』 권103. 중종 39년 5월 29일(병인). “吾道久東, 亦必有傳. 蓋光祖得之於金宏弼, 宏弼得之於金宗直, 宗直得之於前朝臣吉再, 吉再得之於鄭夢周.”

33) 『인종실록』 권1. 인종 1년 3월 13일(을해). “嗚呼! 光祖之學之正, 其所傳者, 有自來矣. 自少慨然有求道之志, 受業於金宏弼, 宏弼受業於金宗直, 宗直之學, 傳於其父司藝臣淑滋, 淑滋之學, 傳於高麗臣吉再, 吉再之學, 傳於鄭夢周, 夢周之學, 實爲吾東方之祖, 則其學問之淵源類此.”

34) 『선조실록』 권3. 선조 2년 윤6월 7일(기유). “以東方學問相傳之次言之, 則以夢周爲東方理學之祖, 吉再學於夢周, 金叔滋學於再吉, 金宗直學於淑滋, 金宏弼學於宗直, 趙光祖學於宏弼, 自有源流也. 邇來, 儒士欲爲聖賢之學, 自上能主教化, 則此其復古之機會也.”

35) 吉再. 『治隱言行拾遺』 卷上. 「行狀」(朴瑞生). 15b. “因遊牧隱, 圃隱, 陽村諸先生之門, 始聞至論.”

지었으며,³⁶⁾ 길재 역시 차운하여 「차포은박송은화상운次圃隱朴松隱畫像韻」을 지었다.³⁷⁾ 길재는 또 고용현高用賢을 애도하는 글, 「뇌고야수문영공誄高野叟文英公」에서 “명망은 이색과 같고 학문은 정몽주와 같다”고 하여 정몽주의 이름을 직접 거론한 경우도 있었다.³⁸⁾

Ⅲ. 길재의 절의와 『소학』 실천

1. 절의의 실천

길재는 22세 때인 공민왕 23년(1374)에 성균관에 들어가 생원 초시에 합격하였다. 이 당시 이색李穡이 대사성이었고 정몽주鄭夢周와 권근權近이 사업司業으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31세 때인 우왕 9년(1383)에 사마감시司馬監試에 합격했고, 이때부터 학문이 더욱 성취되기도에 더욱 밝아졌으며 날마다 권근의 문하에 나아가 길재로부터 문인 중에 제일이라는 평가를 받았다.³⁹⁾ 34세 때인 우왕 12년(1386)에 6등으로 진사에 합격했고, 35세 때인 우왕 13년(1387)에 성균학정成均學正에

36) 朴天翊. 『松隱集』 권1. 3b. “圃隱題先生畫像，故次韻.”

37) 吉再. 『治隱續集』 卷上. 「次圃隱朴松隱畫像韻」. 1a. “鳳目虎眉十尺身，淡紅半白兩相眞，畫圖省識先生面，不死精神影裏人.” 이에 대해서는 김용현. 2015. 『야은 길재, 불사이군의 충절』. 177~178쪽.

38) 吉再. 『治隱續集』 卷上. 「誄高野叟文英公」. 1b. “天挺人英，殉節效忠，名符牧老，學契圃翁，道乃指南，文以鳴東，際是革命，抱義以終，薇歌一曲，古今清風，三綱五常，都繫一躬，公既先逝，何處歸同.”

39) 吉再. 『治隱言行拾遺』 卷上. 「行狀」(朴瑞生). 15b. “因遊牧隱，圃隱，陽村諸先生之年，始聞至論. 癸亥，中司馬監試第四名. 自是學益就道益明，日遊陽村門. 陽村語人曰，踵余門而承學者有幾，吉再父其獨步也.”

제수되었다. 이듬해인 우왕 14년(1388)에 순유박사諄諭博士로 옮겼다가 그해 겨울에 성균박사成均博士로 승진하였다. 당시 성균관의 학생들이나 양반집 자제들이 다투어 가르침을 청할 정도로 그의 명성이 높았다. 37세 때인 1389년에 문하주서門下注書에 임명되었다.

길재가 관직에 나갔을 무렵 고려의 정국은 매우 혼란스러웠다. 우왕 14년(1388) 6월에 우왕이 폐위되고 창왕이 즉위했으며, 그 이듬해인 1389년 11월에는 창왕이 폐위되고 12월에는 우왕과 창왕이 죽음을 당하였다.⁴⁰⁾ 바로 그 직후인 공양왕 2년(1390) 봄(음력 1~3월)에 길재가 노모 봉양을 구실로 사직하고 귀향길에 올랐다.⁴¹⁾ 그렇다면 창왕의 폐위와 공양왕의 즉위, 그리고 그 직후에 있었던 우왕과 창왕의 죽음이 길재의 사직과 귀향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다만 길재의 『행장』에는 길재가 1391년에 우왕의 죽음을 알았다고 되어 있다.⁴²⁾ 이 기록이 정확하다면 우왕의 죽음이 길재 귀향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셈이다. 이와 관련해서 길재는 훗날 정종에게 올린 글에서 “저는 신씨辛氏 조정에 급제하

40) 『高麗史節要』 권34. 공양왕1 己巳元年. “司宰副令尹會宗, 上疏請誅禔昌. 王歷問諸宰相, 皆默然, 我太祖獨曰, 此事不易. 既以安置江陵, 聞于朝廷, 不可中變. 且臣等在, 禔雖欲爲亂, 何憂哉. 王曰, 禔多殺無辜, 宜其自及. 命知申事李行, 降教書, 遣政堂文學徐鈞衡于江陵, 誅禔, 藝文館大提學柳珣于江華, 誅昌.”

41) 吉再. 『治隱言行拾遺』 卷上. 「行狀」(朴瑞生). “庚午春, 知國之將亡, 辭以老母棄官歸.” 길재가 귀향길에 장단長湍에 머물고 있던 이책을 방문하여 하룻밤 묵어간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吉再. 『治隱言行拾遺』 卷上. 「行狀」(朴瑞生). 16a. “道經長湍縣, 就牧隱所居告其志. 牧隱對以丁寧, 作詩贈之, 其末句云. 軒冕儼來非所急, 飛鴻一箇在冥冥.”; 李穡. 『牧隱詩藁』 권35. “門生吉注書, 須次于家, 携老少還善州來別, 一宿而去.” 그러나 『정종실록』에는 기사년, 즉 1689년에 사직하고 귀향한 것으로 되어 있다. 『정종실록』 권5. 정종 2년 7월 2일(을축). “再仕辛朝爲門下注書, 歲己巳, 棄官歸善州.”

42) 박서생이 쓴 길재의 『행장』에 의하면, 길재는 선산 봉계鳳溪의 옛집으로 돌아온 지 1년 이 지난 신미辛未년에 우왕이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귀한 음식을 먹지 않고 부모상에 준하는 방상方喪 삼년을 치름으로써 신하의 예를 다했다고 한다. 실제로 우왕이 죽임을 당한 것은 1389년 12월이므로 길재가 1년이 넘도록 우왕의 죽음을 몰랐다는 것인데, 박서생의 착오일 가능성이 있다. 물론 길재가 우왕의 죽음을 모른 채 귀향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吉再. 『治隱言行拾遺』 卷上. 「行狀」(朴瑞生). 16b. “辛未春, 除鷄林府教授, 不赴. 秋, 除安邊, 亦不赴. 是年, 聞驪興凶訃, 不食菜果醯醬, 方喪三年.”

여 벼슬하다가, 왕씨王氏가 복위하자 곧 고향에 돌아가서 장차 몸을 마치려 하였습니다”⁴³⁾라고 한 바 있다. 왕씨의 복위는 창왕의 폐위와 공양왕의 즉위를 뜻한다.

길재가 쓴 『후산가서後山家序』에는 귀향을 전후한 시기에 그의 내면세계가 어떠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다. 그는 이 글에서 “임금이 요·순과 같은 성군이 되게 하여, 백성들을 요·순의 나라에 살게 하고 세상을 하·은·주 삼대처럼 만드는 것이 평소 나의 뜻이었다”⁴⁴⁾면서 자신이 은거생활을 하게 된 계기와 그 소회를 다음과 같이 풀어냈다.

이제 불행하게도 하늘의 슬픔을 만나 십 년 공부가 사라지고 말았다. 아! 하늘이 하는 일이니 무엇이랴 말하라. 이에 방황하고 탄식하다 훌쩍 마음을 돌려 스스로 자취를 감추고, 덩굴 사이 달빛에 관을 벗어 걸고 맑은 바람에 시를 읊으며 하늘과 땅 사이에서 우러러보고 굽어보며 세상 밖을 소요하면서, 그 시대의 책임을 떠맡지 않고 하늘이 주신 나의 올바른 본성을 길이 보존한다면 과연 은하수를 넘어 우주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어찌 천 필의 말, 만 섬의 쌀과 같은 부귀를 부러워하랴.⁴⁵⁾

여기서 하늘의 슬픔(天之憾)이란 창왕의 폐위와 그 직후에 있었던 우왕·창왕의 죽음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길재는 임금을 도와 세상을 태평성대로 만들겠다는 뜻을 가졌으나 이성계파에 의해서 우왕과 창왕이 연이어 폐위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목도하고는 그 꿈을 접고 은둔의 길을 선택했다고 하였다.

43) 『정종실록』 권5. 정종 2년 7월 2(을축). “再於辛朝登科筮仕, 及王氏復位, 卽歸于鄉, 若將終身.”

44) 吉再. 『治隱先生言行拾遺』 卷上. 「後山家序」. 9a. “事君則堯舜其君, 納民於唐虞, 躋世於三代, 此余平日所志也.”

45) 吉再. 『治隱先生言行拾遺』 卷上. 「後山家序」. 9a. “今也不幸, 逢天之憾, 十年之功, 掃地如也. 嗚呼, 天實爲之, 謂之何哉. 於是彷徨感慨, 翻然改圖, 莫若隱然自晦, 掛冠蘿月, 吟嘯清風, 俯仰二儀之間, 逍遙一世之上, 不受當時之責, 永保性命之正. 如是則可以凌霄漢出宇宙之外. 豈羨千駟萬鍾之富貴乎.”

다만 길재는 창왕이 폐위되기 전에 이미 매우 구체적인 귀향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은 길재가 누군가에게 보낸 편지이다.

어제 저녁에 보내주신 편지 잘 받았습니다. 요사이 안녕하시다니,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위안이 됩니다. 저는 그럭저럭 지내고 있으나 처지와 사세(事勢)가 서울에 있기에 불편해서 추석에는 식구들을 데리고 선산 고향으로 가서 살 계획입니다.⁴⁶⁾

이 짧은 편지는 8월 7일에 보낸 것으로 되어 있다. 어느 해인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정황상 귀향하기 두 해 전인 1388년이나 한 해 전인 1389년일 가능성이 높다. 확실한 것은 길재가 창왕이 폐위된 1389년 11월 이전에 이미 귀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고, 그것도 추석이라고 날짜를 명시한 것은 귀향 계획이 매우 구체적이었음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창왕의 폐위 때문에 그가 사직을 하고 귀향을 한 것이 아닌 것만 큼은 분명하다. 그가 위의 편지에서 귀향의 이유를 처지와 사세가 서울에 있기에 불편해서라고 밝힌 것으로 보아 그 당시 정치 상황을 견디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⁴⁷⁾ 이와 관련해서 그의 「행장」에는 나라가 장차 망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직했다고 기록되어 있다.⁴⁸⁾ 그렇다면 이성계 파의 득세와 우왕의 폐위, 그리고 그 이후 지속된 국정 불안과 그로 인해 예견된 고려왕조의 폐망이 그로 하여금 관직을 버리게 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살펴보아야 할 길재의 시가 한 편 있다. 「반궁에서 우연히 읊다(泮宮偶吟)」라는 제목의 시가 그것인데, 박서생이 쓴 길재의 「행

46) 吉再. 『治隱先生續集』 卷上. 「答或人」. 2a. “昨夕, 承獲惠書. 謹審日間尊候安福, 開慰不可言. 僕粗過, 而踪地事勢, 在都下不便, 欲於秋夕, 般眷住在於善鄉爲計耳. 八月七日, 再頓.”

47) 김용현. 2015. 『야은 길재, 불사이군의 충절』. 예문서원. 58쪽.

48) 吉再. 『治隱言行拾遺』 卷上. 「行狀」(朴瑞生). 16a. “庚午春, 知國之將亡, 辭以老母棄官歸.”

장」에는 “이 해에 나라에서 요동을 공격하자 선생이 이 시를 지었다”고 하였다.⁴⁹⁾

용수산 동쪽에 낮은 담장은 기울었고
미나리 밭 두둑엔 푸른 버들 늘어졌네.
몸은 비록 다른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지만
뜻만은 수양산의 백이·숙제라네.

용수산은 개성의 남쪽 지역에 위치한 산이고, 미나리 밭은 반궁泮宮, 즉 성균관을 가리킨다. 이 시에서 기울어진 성곽과 늘어진 버드나무는 고려의 위태로운 앞날을 상징한다. 길재는 요동정벌군의 출병을 보면서 이미 고려의 종말과 새 왕조의 등장을 예견하고 스스로 백이·숙제처럼 절의의 길을 가겠다는 결심을 했던 것이다.⁵⁰⁾ 여기서 길재의 사직과 낙향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그의 확고한 절의정신에 따른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길재가 낙향한 이후에 고려 조정에서 연이어 내린 계림부교수鷄林府教授와 안변교수安邊教授의 관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⁵¹⁾도 그의 사직이 일회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말해준다.

마침내 1392년 7월 고려가 막을 내리고 조선이 건국되었다. 이 무렵 안준安俊에게 쓴 편지에서 길재는 나라를 잃은 슬픔을 다음과 같이 토로 하였다.

강산은 예전과 다르고 태양 곁의 구름 빛도 변했습니다. 별들은 새벽달에 걸리었고 들판에 닭들은 시끄럽게 울어대는데, 눈을 떠 사방을 돌아보니 부

49) 吉再. 『治隱言行拾遺』 卷上. 「行狀」(朴瑞生). 16a. “是年, 國家攻遼東, 先生作詩曰, 龍首正東傾短墻, 水芹田畔有垂楊, 身雖從衆無奇特, 志則夷齊餓首陽.”

50) 이 시에 대한 분석은 김용현. 2015. 『야은 길재, 불사이군의 충절』. 예문서원. 133-136쪽 참조.

51) 공양왕 3년(1391)의 일이다. 吉再. 『治隱言行拾遺』 卷上. 「行狀」(朴瑞生). 16b. “辛未春, 除鷄林府教授, 不赴.”

끄럽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초가집 어느 곳에 이 미천함 몸을 의탁하겠습니까? 금오산 한 자락에 햇빛은 여전하고 구름은 흘러가는데, 초목은 무성하고 대나무도 울창합니다. 여기에 움막을 엮어서 낮이나 밤이나 베개 하나로 세월을 보내니, 새들이 토란 밭에 날아와 지저귀입니다. 혹시 그대와 함께 다시 한 번 만나 돈독했던 옛 정으로 회포를 풀고 싶지만, 하늘이 장난을 치니 사람이 어찌 하겠습니까? 시를 지어 읊조려 보지만 목조차 메이니, 옥 같은 그대가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편지를 봉하려니 북받치는 슬픔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전 행춘추관 주서 길재는 통곡하며 씩니다.⁵²⁾

한때 뜻을 같이 했던 동료들 만나 망국의 회한을 풀고 싶지만 공개적으로 만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기에 편지로 대신할 수밖에 없는 비통한 심정이 담겨있는 글이라 할 수 있다. 안준은 1392년(공양왕 4) 정몽주가 살해된 후 그 일당으로 몰려 우현보禹玄寶·우홍수禹洪壽 등과 함께 관직을 삭탈당하고 의령宜寧으로 유배되었다가 조선왕조 출범 직후에 유배지가 예천醴泉으로 바뀐 인물로 얼마 후 그곳에서 사망하였다.⁵³⁾ 그가 이성계과에 저항하다 유배의 처벌을 받은 인물이었던 만큼 길재와 정서적·정치적 교감이 깊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길재는 조선왕조에 들어와서도 출사를 거부하였다. 정종 2년(1400)에 정종은 당시 실권자였던 이방원의 뜻에 따라 그를 정6품 벼슬인 봉상박사奉常博士에 임명하였다.⁵⁴⁾ 다음은 길재가 정종에게 출사 거부의 뜻을 밝

52) 吉再. 『治隱先生續集』 卷上. 「與安奉常寺 俊」, 2b. “江山殊古, 雲物變態. 星分曉月, 野鷄紛鳴, 舉目四觀, 無物不覩. 草庄何處, 托斯微踪. 一面烏山, 舊日新雲, 卉水蕃茂, 有竹猗猗. 於焉結窩, 以畫爲宵, 一枕兩和, 雲鳥來芋. 倘與玉人, 更獲一見, 舊情敦篤, 以抒懷緒, 天實戲之, 人無得何. 作詩吟詠, 錦波咽咽, 玉人君子, 以慰我心. 臨緘淒悵, 不知所喻. 前行春秋館注書吉再, 痛哭書.”

5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 『高麗史節要』 권35. 「공양왕2」, 임신 4년조 ; 『태조실록』 권1. 태조 1년 7월 28일(정미). 『태조실록』에는 안준이 직첩을 회수당하고 먼 지방에 방치放置되는 처벌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 김용현. 2015. 『야은 길재, 불사이군의 충절』, 85쪽.

54) 『정종실록』 권5. 정종 2년 7월 2일(을축) ; 『정종실록』 권5. 정종 2년 7월 2일(을축).

힌 글이다.

신이 본래 한미한 사람으로 신씨辛氏의 조정에서 과거에 합격하고 벼슬이 문하주서門下注書에 이르렀습니다. 신이 듣건대, “여자에게는 두 남편이 없고, 신하에게는 두 임금이 없다”고 합니다. 저를 놓아 보내 시골로 돌아가게 하여, 두 성姓을 섞이지 않겠다는 뜻을 이루게 하고, 효도로 늙은 어미를 봉양하게 하여 여생을 마치게 해 주십시오.⁵⁵⁾

길재는 조선 건국 세력이 강제로 폐위시키고 살해한 우왕·창왕의 신하임을 자처하면서 신하에게는 두 임금이 없다는 논리로 출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하에게 두 임금이 없다는 것은 조선의 임금을 임금으로 섬길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고, 따라서 이방원과 정중으로서의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주장이다. 이에 대해 권근은 “선비가 진실로 뜻이 있으면 그 뜻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그 의견에 따라 정중은 길재가 선산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고 그 집의 부역을 면제해 주도록 하였다.⁵⁶⁾ 이 일과 관련해서 『정중실록』의 사신은 “길재가 능히 옛 임금을 위하여 절의를 지켜, 공명을 뜬구름 같이 여기고, 작록을 헌신짝 같이 보아, 초야草野에서 몸을 마치려 하였으니, 또한 충렬忠烈의 선비라 하겠다”라고 평가하였다.⁵⁷⁾

55) 『정중실록』 권5. 정중 2년 7월 2일(을축). “臣本寒微，仕於辛氏之朝，擢第至門下注書。臣聞女無二夫，臣無二主。乞放歸田里，以遂臣不事二姓之志，孝養老母，以終餘年。”

56) 『정중실록』 권5. 정중 2년 7월 2일(을축). “上覽而怪之曰，此何人也？左右曰，寒儒也。明日御經筵，問權近曰，吉再抗節不仕，不識古有如此者，何以處之？近對曰，如是之人，當請留之，加以爵祿，以勸後人。請之而強去，則不如使之自盡其心之爲愈也。光武，漢之賢主也，而嚴光不仕。士固有志，不可奪也。上乃許歸本郡，令復其家。”

57) 『정중실록』 권5. 정중 2년 7월 2일(을축). “史臣洪汝剛曰，辛氏之亡已久，無子孫之可托矣。再也，能爲舊君，守其節義，等功名於浮雲，視爵祿於弊屣，若將終身於草野，亦可謂忠烈之士矣。”

2. 학문과 교육

길재가 선산으로 낙향하여 한 일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학생들을 가르친 것이었다. 성현成愼의 『용재총화慵齋叢話』에는 길재에게 수업 받는 학생이 하루에도 100명이 되었다고 하였으며,⁵⁸⁾ 김종직은 『이준록彝尊錄』에서 길재가 “금오산 아래 집을 짓고 자체를 가르치니, 청년과 아이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고 하였다.⁵⁹⁾ 박서생이 찬한 그의 「행장」에는 “출가를 했다가 그에게 감화를 받아 다시 돌아온 사람이 수십 명이 되었다.”면서 “경학을 공부하는 선비로 길재의 문하에서 배출된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고 하였다.⁶⁰⁾ 위의 언급들이 다소 과장되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에게 감화되어 유학으로 돌아온 사람이 수십 명이나 되었다는 것은 길재가 교육자로서 선산 지역에 유풍을 진작하는 데 큰 역할을 했음을 말해준다.

박세채朴世采는 『동유사우록東儒師友錄』에서 길재의 문인으로 김숙자金叔滋·김치金峙·박서생朴瑞生·길구吉久 네 사람을 들었다. 최영성은 최근 연구에서 위 네 사람에다 김극일金極一·조상치曹尙治·옥고玉沽·최운룡崔雲龍·길사순吉師舜을 추가하였다.⁶¹⁾ 이 가운데 길구는 길재의 동생이고 길사순을 길재의 아들이다. 김치는 선산 사람으로 우왕 때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김해부사에 이르렀으며, 김숙자와 이웃해 살면서 그를 가르치기도 하였다.⁶²⁾ 박서생은 길재의 「행장」을 찬함으로써 길재의

58) 吉再. 『治隱言行拾遺』 卷中. 「慵齋叢話」(成愼). 4b~5a. “公聚郡中諸生徒, 分爲兩齋, 以閭閻之裔爲上齋, 以鄉曲賤族爲下齋, 教以經史, 課其勤惰, 受業者日以百數.”

59) 金宗直. 『佔畢齋集』. 『彝尊錄』 下. 2a. “及年十二三, 鄉先生吉公再, 以管仕高麗, 辭祿於本朝, 累徵不起. 卜築金烏山下, 教授子弟, 童叟雲集.”

60) 吉再. 『治隱言行拾遺』 卷上. 「行狀」(朴瑞生). 20ab. “縉流之感悟而反本者, 不啻數十人. 先生之弟浮屠久, 亦悟而之儒, 中生員試. 經術之士, 出於先生之門者, 不可勝數. 余亦側末, 獲聞餘論焉.”

61) 길재의 문인들에 대해서는 최영성. 2011. 「야은 길재와 그 문생들의 도학사상」. 『한국학논집』 45.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115~123쪽에 잘 정리되어 있다.

62) 金宗直. 『佔畢齋集』. 『彝尊錄』 上. 「先公師友 第三」. 22a. “金峙, 同府人, 官至金海府使,

자취를 후세에 전하는 데 남다른 역할을 하였다. 『동유사우록東儒師友錄』에는 박서생이 “천리가 독실하여 아은의 학통을 전하였다.”⁶³⁾고 기술되어 있다.

성현成僞의 기록에 따르면, 길재가 그 고을 안의 여러 학도를 모아 불리 경전經典과 사서史書を 가르쳤는데, 와서 배운 사람이 매일 백여 명을 헤아렸다고 한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상재上齋와 하재下齋를 두고 명문가의 후예와 향곡鄉曲의 천족賤族을 나누어 가르쳤다는 대목이다.⁶⁴⁾ 학생들을 신분에 따라 나눈 것은 신분사회의 시대적 한계를 반영하는 것이지만, 천민들을 가르친 것은 교육의 확장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박서생이 찬한 「행장」에는 그의 학문 및 교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그는 항상 말하기를 “낮에 언행이 잘못되는 것은 밤에 마음을 보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밤이면 온갖 잡념을 제거한 채 말없이 고요히 앉았다가 밤중에는 잠들었으며, 간혹 이불을 두르고 날이 새기를 기다리기도 하였다. 닭이 처음 울면 양치질과 세수를 하고 의관을 갖춘 뒤 새벽 일찍 사당을 찾아 절하고 선성先聖께도 참배하였다. 또 자제들과 서로 인사를 나눈 뒤 경서經書を 강론하되 반드시 정주程朱의 뜻에 맞도록 힘썼다. 말은 반드시 충효를 위주로 했으며, 비록 병이 들어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외물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시정배의 말과 음란한 음악은 한 번도 귀담아 들은 적이 없었으며, 이단의 글과 예에 맞지 않는 일은 눈으로 보지 않았다. 모든 대소 관리가 먼저 예를 갖추지 않으면 그 관부에 들어가지 않았으며, 의롭지 않은 일이면 남의 집에 가지 않았고 마을 밖을 나가지 않았다. 일찍이 도학을 밝히고 이단을 물리치는 것으로 일을 삼고, 책상 앞에 꿇꿇이 앉아 책을 읽고 공부하느라 밤이 새도록 지칠 줄 몰랐다.⁶⁵⁾

與迎鳳里第比隣。己亥年，以知司諫參試。”

63) 朴世采, 『東儒師友錄』 권3. 「林大憲」. 불함문화사. 67~69쪽.

64) 吉再, 『治隱言行拾遺』 卷中, 「慵齋叢話」(成僞), 4b~5a. “公聚郡中諸生徒, 分爲兩齋, 以閭閻之裔爲上齋, 以鄉曲賤族爲下齋, 教以經史, 課其勤惰, 受業者日以百數.”

이 글은 길재의 삶의 방식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 준다. 길재는 밤이면 온갖 잡념들을 털어버리고 고요히 앉아 마음을 정화하는 정좌靜坐를 하였다. 이와 같은 공부는 주일무적主一無適, 정재엄숙整齊嚴肅 등으로 표현되는 경공부敬工夫의 한 형태로서 존심存心·양성養性을 위한 공부의 일환이다. 길재가 이와 같은 공부를 한 것은 인간의 도덕적 일탈이 외물과 인욕에 사로잡혀 마음에 내재한 도덕적 본성을 보존하고 함양하지 못한 탓이라는 인식에 근거한 것이다. 결국 밤에 이루어지는 정좌 공부라는 것은 인욕을 막고 천리를 보존하는 공부인 셈이다.

한편 새벽 일찍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의관을 갖춘 뒤 사당과 선성에 참배하고, 자제들과 경서를 강론하고, 밤이면 정좌하는 삶의 방식은 진무경陳茂卿의 「숙흥야매잠夙興夜寐箴」에 기술된 공부와 매우 유사하다.⁶⁵⁾ 더욱이 이황이 「숙흥야매잠도」를 주희의 「경재잠도敬齋箴圖」와 더불어 그의 『성학십도聖學十圖』에 포함시킨 것을 감안하면, 「숙흥야매잠」에 기술된 내용은 주자학의 전형적인 실천 내지 공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⁶⁷⁾

또한 병이 들어도 책을 놓지 않을 정도로 독서에 매진한 길재가 경서를 강론할 때 정자와 주자의 뜻에 부합하도록 애썼다는 것은 그의 독서와 강

65) 吉再, 『治隱言行拾遺』 卷上, 「行狀」(朴瑞生). 19b-20a. “常語人曰, 人之晝有錯於言行, 夜不存心耳. 至夜撥置萬慮, 靜坐不言, 中夜而寢, 或擁衾待曉. 鷄初鳴, 盥漱具冠衣, 晨謁祠堂, 遂及先聖. 又與弟子相揖訖, 講論經書, 必務合於程朱之旨. 言必以忠孝爲主, 雖有疾病, 手不釋卷. 不以事物關心, 市井之語, 鄭衛之音, 未嘗經於耳, 異端之書, 非禮之色, 未嘗接於目. 凡大小官, 不先加禮, 未嘗入官府, 非義之事, 未嘗赴人家, 不出洞口. 嘗以明道學關異端爲事, 對案危坐, 辨析折衷, 竟夕忘倦.”

66) 다만 「夙興夜寐箴」에는 靜坐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夙興夜寐箴」에 나오는 “端坐斂形 提掇此心”, “靜存動察 勿貳勿參”, “齋莊整齊 振拔精明”과 같은 것은 정좌와 크게 다르지 않다.

67) 李滉, 『退溪先生文集』 권7, 「進聖學十圖筭 并圖」. 34b-35a. “臣今謹倣魯齋敬齋箴圖, 作此圖以與彼圖相對. 蓋敬齋箴有許多用工地頭, 故隨其地頭, 而排列爲圖, 此箴有許多用工時分, 故隨其時分, 而排列爲圖. 夫道之流行於日用之間, 無所適而不在, 故無一息無理之地, 何地而可輟工夫, 無頃刻之或停, 故無一息無理之時, 何時而不用工夫.”

론이 주자학의 틀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길재의 학문은 거경과 공리, 달리 말해 존덕성存德性和 도문학道問學을 아울러 갖춘 전형적인 주자학의 공부를 실천한 것으로 이해된다. 더욱이 “도학을 밝히고 이단을 물리치는 것으로 일을 삼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길재의 절의정신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도道の 철저한 실천이라는 도학의 실천적 문제의식에 기초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의 「행장」에 의하면, 길재는 본래 청렴하고 고결하여 살림살이는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충효에 마음을 쏟고 상례와 제례에 정성을 다하였다. 부모의 기일忌日에 쌀 한 톨도 먹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친족의 상喪이 있으면 반드시 주자가 만든 복제服制에 따라 예를 극진히 했고, 이웃에 상喪이 나면 그가 비록 미천한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죽을 먹되 배부르게 먹지 않았다.⁶⁸⁾ 길재의 의례적 실천 역시 주자의 『가례家禮』를 따랐던 것이다.

그러나 길재의 삶의 방식이 단순히 주자학의 도학적 엄숙주의와 형식주의에만 머물지 않았다. 다음의 시를 보자.

한가하게 지내다(閑居)

차고 맑은 샘물에 손을 씻고
큰 나무 무성한 숲속을 거니네.
칭년들, 아이들 찾아와 글을 물으니
더불어 한가롭게 노닐 만하네.⁶⁹⁾

68) 吉再. 『治隱言行拾遺』 卷上. 「行狀」(朴瑞生). 19b. “先生本清苦, 不顧生產作業, 留心忠孝, 謹於喪祭, 每值親忌, 一粒不下口, 曰古人謂忌日爲終身之喪, 安忍哺啜, 遂垂淚終日, 一家從而齋素. 如遇宗族之喪, 必服文公所制之服, 以盡禮焉. 隣有喪, 雖微者必啜粥, 未嘗飽也.”

69) 吉再. 『治隱言行拾遺』 卷上. 「閑居」. 5a. “盥手清泉冷, 臨身茂樹高, 冠童來問字, 聊可與逍遙.”

이 시에 묘사된 길재의 삶은 산골 마을에서 맑은 샘물에 손을 씻고 숲속을 거니는 한가로운 삶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하게 지낸다는 뜻의 한거閑居는 사람을 떠나고 현실을 떠난 은자隱者의 삶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세상에서 격리된 채 혼자만의 길을 걷는 삶이 아니라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때로는 그들과 거닐면서 담소를 나누는 삶이다. 그래서 이 시에서 연상되는 것은 “늦은 봄에 봄옷이 마련되면 젊은 청년 대여섯 명, 어린 아이 예닐곱 명과 함께 기수沂水에서 목욕하고 무우舞雩에서 바람 쐬고 노래하며 돌아오겠습니다.”⁷⁰⁾라고 했던 증점曾點의 기상이다.

주희朱熹는 증점의 학문에 대해서 “증점의 학문에는 아마도 저 인욕이 없어진 곳에 천리가 유행하여 언제 어디서나 충만하여 조금의 흠도 없는 경지에 대한 통찰이 있었다.”⁷¹⁾고 하였다. 주희를 비롯해 도학자들이 설정한 삶의 이상적인 경지는 존천리存天理·멸인욕滅人欲의 상태, 즉 마음에 인욕이 사라지고 순수하게 천리만 보존된 경지이다. 이러한 경지에 이른 사람은 사적인 욕망이 사라진 상태이므로 나와 너의 구별이 없고 나와 외물의 구별이 없다. 그에게는 심지어 자신을 버리고 남을 위하겠다는 뜻마저도 일종의 작위 의식, 즉 어떤 의도된 의식에 지나지 않는다. 한마디로 그는 천지만물과 더불어 하나가 된 사람이므로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할 뿐이다. 그 어떤 사적인 이익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나와 나의 경계가 무너졌을 때, 그가 하는 일은 모두 도의 실천이다.

길재의 「한거」가 모든 인욕이 사라지고 천리가 충만한 경지에 이른 삶을 노래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자연 속에 살면서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고, 가끔씩 그들과 한가롭게 거닐면서 담소를 나누는 생활

70) 『論語』, 「先進」, “莫春者, 春服既成, 冠者五六人, 童子六七人, 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 夫子喟然嘆曰, 吾與點也.”

71) 朱熹, 『論語集註』, 「先進」, “曾點之學, 蓋有以見夫人欲盡處, 天理流行, 隨處充滿, 無所欠缺. 故其動靜之際, 從容如此, 而其言志, 則又不過即其所居之位, 樂其日用之常, 初無舍己爲人之意. 而其胸次悠然, 直與天地萬物上下同流, 各得其所之妙, 隱然自見於言外.”

은 공자가 인정했던 증점曾點의 기상과 다를 것이 없다. 그래서 그는 증점과 마찬가지로 “고요할 때나 움직일 때나 그와 같이 담담했고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일상생활의 몇몇함을 즐길 수 있었다.”⁷²⁾ 길재가 “청년들, 아이들 찾아와 글을 물으니 더불어 한가롭게 노닐 만하네.”라고 했을 때, 그 내면의 지향은 사적 욕망의 제거를 통해 유교적 가치, 즉 천리를 보존하고 실천해 가는 데 있었다.⁷³⁾

3 『소학』 실천

길재의 문인 가운데 후세에 미친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사람은 김숙자이다. 주지하다시피 김숙자는 훗날 사림들에 의해서 길재의 학문을 김중직에게 전한 인물로 설정되었다. 길재가 김숙자를 비롯한 제자들을 통해 후대에 전한 공부의 실체가 무엇일까? 앞에서 살핀 것처럼 길재는 후학들에게 경서經書를 가르치되 정주程朱의 뜻에 따랐다. 그는 또한 정좌와 같은 존양의 공부와 『주자가례』의 예법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후학들에게 도학적 실천의 모범을 보였다. 이는 길재가 기본적으로 주자학의 학문과 실천을 후학에게 가르쳤다는 것을 뜻한다.

그 이외에 길재의 교육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그의 교육이 다분히 『소학』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이다. 『소학』은 1187년 주희와 유청지劉淸之가 오류를 비롯해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논한 글들을 뽑아 만든 주자학적 일상 규범서이다.⁷⁴⁾

『소학』이 조선 초 과거를 보기 위해 읽어야 할 필독서를 넘어 실천적·

72) 이 말은 주희가 증점에 대해 내린 평가이다. 주 71) 참조.

73) 이 시의 내용 분석에 대해서는 김용현, 2015. 『야은 길재, 불사이군의 충절』, 130-131쪽 참조.

74) 조선 전기 『소학』 실천과 관련된 내용은 김용현, 2011. 「조선전기 사림과 성리학의 전개와 특징」, 『국학연구』 19. 한국국학진흥원, 44-51쪽에서 요약하였다.

정치적 의미를 확보하기 시작한 것은 성종 대에 와서이다. 성종은 사서를 읽기 전에 『소학』을 통달하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고,⁷⁵⁾ 경연에서 몸소 강론할 정도로 『소학』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⁷⁶⁾ 하지만 임사홍任士洪은 남효온·강응정·정여창·박연 등이 무리를 만들어 항상 『소학』의 도를 행한다는 명분으로 서로 이론異論을 숭상한다고 비난했고,⁷⁷⁾ 남효온이 강응정·박연 등과 더불어 소학계小學契를 만들어 비웃음을 사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⁷⁸⁾ 이 시기에 김종직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소학』을 공부하고 몸소 실천하는 풍토가 생겨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임사홍과 같은 대표적인 훈구 대신이 이를 경계하고 비판했다는 것은 사람들의 『소학』 실천이 이미 정치적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이처럼 성종 대에 이르러 『소학』은 김종직의 세례를 받은 사람과 학자들의 학문적·실천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김종직이 김굉필에게 『소학』을 주면서 “진실로 학문에 뜻을 두었다면 마땅히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던 것⁷⁹⁾에서 알 수 있듯이 『소학』의 보급에는 김종직의 역할이 작지 않았다. 김굉필은 “문장에 힘썼는데도 천기天機를 알지 못했는데, 『소학』에서 어제의 잘못을 깨달았네.”라고 했듯이,⁸⁰⁾ 『소학』은 김굉필이 사장학에서 도학으로 학문적 관심사를 전환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훗날 기묘사람으로부터 정신적 지주로 인정받게 되는 김굉필金宏弼이 『소학』동자로 자처할 만큼 『소학』 공부와 실천에 힘썼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다.⁸¹⁾

75) 『성종실록』 권69. 7년 7월 23일(갑자).

76) 『성종실록』 권78. 8년 3월 8일(을해).

77) 『성종실록』 권91. 9년 4월 15일(병오). “士洪啓曰, 此疏與深源上疏相同. 深源薦慶延、姜應貞, 孝溫亦薦慶延. 臣竊聞之, 孝溫之徒有如姜應貞鄭如昌[鄭汝昌]朴演等, 別爲一群, 推應貞爲夫子, 指朴演爲顏淵, 常以行小學之道爲名, 相尙異論, 此固弊風也.”

78) 『성종실록』 권91. 9년 4월 24일(을묘).

79) 金宏弼, 『景賢錄』. 『國譯 景賢錄』上. 「事實」. 17쪽.

80) 金宏弼, 『景賢錄』. 『國譯 景賢錄』上. 「讀小學」. 38-39쪽; 南孝溫, 『秋江集』 권7. 「師友名行錄」. 21b-22a. “業文猶未識天機, 小學書中悟昨非.”

81) 南孝溫, 『秋江集』 권7. 「師友名行錄」. 21b-22a.

조광조를 위시한 기묘사림의 정치적 실천도 그 바탕에는 역시 『소학』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중종실록』은 “세 사람(조광조·김식·박훈)은 뜻이 같아서 공리功利에 급급하지 않고 성현의 학문에 뜻이 있었다. 항상 『소학』을 읽어 그 행실을 조신하게 했고 헛된 논의에도 꺾이지 않았으니, 사림들이 매우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다”고 하였다.⁸²⁾

훗날 이황李滉은 선조에게 『소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옛날 사람들은 먼저 『소학』을 읽어서 본바탕을 함양했기 때문에 『대학』에서 먼저 격물·치지를 말한 것입니다. 후세 사람들은 『소학』을 읽지 않기 때문에 학문에 근본이 없어 격물·치지의 공효를 알지 못합니다. 『소학』은 비단 어린 사람들뿐만 아니라 장성한 사람들도 읽어야 할 책입니다. 『소학』이 우리나라에 유포된 지 오래되었지만 그 대의大義를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김굉필이 학생들을 모아 밝게 가르치자 그 책이 세상에 크게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기묘년에 이르러 사람들이 모두 『소학』을 근본으로 여겼는데 불행하게도 현인·군자들이 죄의 그물에 걸렸기 때문에 지금 민간에서는 『소학』을 읽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교화가 밝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지금 『대학』을 공부하고 계시지만 『소학』 역시 유념해서 보셔야 합니다.⁸³⁾

이상을 종합해 보면, 김종직-김굉필-조광조로 이어지는 사림과 학자들은 물론 16세기 중반 사림의 영수였던 이황까지도 『소학』 공부와 실천을 매우 중시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서도 언급한 것처럼 조선 전기 사림

82) 『중종실록』 권22, 10년 6월 8일(계해). “三人同志，不汲汲於功利，有志聖賢之學。常讀小學，以飭其行，不爲浮議所撓，士林頗愛重之。”

83) 『선조실록』 권1. 선조 즉위년 11월 4일(을묘). “李滉臨文啓曰，古人先讀小學，涵養本源，故大學先言格物致知。後人不讀小學，故學無根本，不能知格致之功。小學非但年少所讀，長成之人，亦可讀也。小學之書，流布東土已久，而人無能知其大義。有金宏弼，聚徒講明，其書大行於世。至於己卯年，人皆以小學爲本，不幸，賢人君子陷於罪網，至今閭巷之間，無讀小學之人，此教化不明之致也。自上雖進講大學，而小學亦可留覽也。”

파의 학문적·실천적 정체성이 『소학』 실천에 있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소학』 실천은 사림파를 사림파답게 만드는 핵심 내용이다. 그렇다면 사림파에서 『소학』 실천을 중시하게 된 것은 어디에서 기원하는 것일까?

김종직은 길재의 교육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공(김숙자)의 나이 12~13세에 이르렀을 때이다. 이때 길재 선생이 일찍이 고려에서 벼슬을 했던 관계로 본 왕조에서는 녹봉을 사양하고 여러 차례 부름을 받고도 나아가지 않았다. 선생은 금오산 밑에 집을 짓고 자체들을 가르쳤는데, 아동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선생은 쇄소응대灑掃應對의 절차로부터 도무영가蹈舞詠歌에 이르기까지 다 가르치되, 등급을 뛰어넘지 못하게 하였다. 공도 또한 가서 공부를 하였다.⁸⁴⁾

김종직은 길재의 교육을 한 마디로 “쇄소응대灑掃應對의 절차로부터 도무영가蹈舞詠歌에 이르기까지 다 가르치되, 등급을 뛰어넘지 못하게 하였다”고 정리하였다. 길재가 김숙자에게 가르친 것은 심원한 천리가 아니라 쇄소응대로부터 시작되는 소학小學의 공부였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길재가 경전經典과 사서史書를 가르쳤다고 경서經書를 강론하되 정주의 뜻에 따랐다고 한 것으로 보아 그의 교육을 소학에만 한정할 수는 없다. 길재가 성균관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성균관의 학생들과 지체 높은 관리들의 자체들이 다투어 가르침을 청할 정도로 그의 명성이 높았다는 것,⁸⁵⁾ 경의經義에 밝고 행실을 닦았다는 이방원의 평가,⁸⁶⁾ 이방원에게 『시경』을 강의한 것,⁸⁷⁾ 그리고 “박학하지는 않으나 『시경』과 『서

84) 金宗直. 『佔畢齋集』. 『彝尊錄』 下. 2a. “及年十二三, 鄉先生吉公再, 以嘗仕高麗, 辭祿於本朝, 累徵不起. 卜築金烏山下, 教授子弟, 童叟雲集. 其教自灑掃應對之節, 以至蹈舞詠歌, 不使之躐等. 公亦往受業焉.”

85) 吉再. 『治隱言行拾遺』 卷上. 「行狀」(朴瑞生). 16a. “丁卯, 授成均學正. 戊辰, 遷諄諄博士, 冬, 陞成均博士. 當是時, 仕于公, 太學諸生, 退于私, 搢紳子弟, 侍先生所在, 爭握衣請益.”

86) 『정중실록』 권5. 정중 2년 7월 2일(을축). “高麗注書吉再至京. 世子嘗以再經明行修, 下令三軍府, 移牒徵之.”

경』을 알았다”는 설순(倣循⁸⁸)의 언급 등을 보아도 길재가 경학을 소홀히 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길재에서 김숙자·김종직을 거쳐 김굉필로 이어지면서 사람과의 학문적·정치적 정체성이 확립되는 데는 길재의 『소학』 교육과 실천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주희는 「소학제사(小學題辭)」에서 “소학의 방법은 물 뿌리고 청소하고 응대하며, 집에서는 효도하고 밖에서는 공경하여, 행동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뒤에 여력이 있으면 시(詩)를 외고 글을 읽으며, 영가(詠歌)하고 무도(舞蹈)를 하여, 생각에 지나침이 없도록 한다.”⁸⁹라고 하였다. 여기서 주희가 말한 소학의 방법은 “쇄소응대(灑掃應對)의 절차로부터 도무영가(蹈舞詠歌)에 이르기까지 다 가르치되, 등급을 뛰어넘지 못하게 하였다”는 길재의 교육 내용 및 방법과 정확히 일치한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김종직이 길재의 교육을 「소학제사」에 의거해 설명했다는 점이며, 이것은 김종직이 길재 교육의 특성, 특히 길재와 김숙자 사이에 있었던 교육의 본질을 소학 공부와 소학 실천으로 파악했음을 의미한다.

『정중실록』에 따르면, 이방원이 길재의 근황을 궁금해 하자 정자(正字)의 직위에 있던 전가식(田可植)은 집에서 효를 실행하는 길재의 아름다움을 자세하게 말하였다.⁹⁰ 선산 출신으로 한 해 전에 급제했기 때문에 길재의 선산 생활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전가식의 눈에 비친 길재의 모습은 효를 실행하는 사람이었다. 『세종실록』에 있는 길재의 「졸기」에서도 “학생을 가르치되 효제(孝悌)·충신(忠信)과 예의(禮義)·염치(廉恥)를 먼저 가르쳤다”⁹¹고 하였다. 역시 길재의 삶과 교육에서는 무엇보다 일상적인

87) 『세종실록』 권50. 세종 12년 11월 23일(경신). “上曰, 太宗召再, 再進講詩一篇而還, 是自比於箕子陳洪範也. 當時, 豈無通詩者, 而再敢進講, 甚迂闊矣.”

88) 『세종실록』 권50. 세종 12년 11월 23일(경신). “循曰, 再非博學, 但識詩書.”

89) 朱熹·劉子澄. 『小學』. 「小學題辭」(朱熹). “小學之方, 灑掃應對, 入孝出恭, 動罔或悖, 行有餘力, 誦詩讀書, 詠歌舞蹈, 思罔或逾.”

90) 『정중실록』 권5. 정중 2년 7월 2일(을축). “正字田可植, 再同貫人也, 具言在家孝行之美.”

91) 『세종실록』 권3. 세종 1년 4월 12일(병술). “奉母惟謹, 定省不廢, 必具甘旨, 居室屢空,

실천, 즉 소학의 실천이 중요했음을 알 수 있다.

IV. 길재 학문의 전승 - 김숙자의 『소학』 실천

인종 1년(1545) 3월 성균관 진사 박근朴謹 등이 조광조의 신원을 요청하는 상소에서 조광조의 학문적 유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 조광조의 학문이 바른 것은 전해온 데에 유래가 있습니다. 젊어서부터 개연히 도道を 찾는 뜻이 있어서 김굉필金宏弼에게서 수업受業하였습니다. 김굉필은 김종직金宗直에게서 수업하고 김종직의 학문은 그 아버지 사예司藝 숙자叔滋에게서 전해졌고 숙자의 학문은 고려의 신하 길재吉再에게서 전해졌고 길재의 학문은 정몽주鄭夢周에게서 전해졌는데 정몽주의 학문은 실로 우리 동방의 시조이니, 그 학문의 연원淵源이 이러합니다.⁹²⁾

우리나라의 도통이 정몽주-길재-김종직-김굉필-조광조로 이어진다는 것은 중종 39년(1544) 5월 성균관 생원 신백령辛百齡 등의 상소에서 이미 거론된 적이 있다.⁹³⁾ 하지만 이 계보는 길재에게 직접 배운 적이 없는 김종직을 길재와 바로 연결했다는 문제가 있다. 길재는 1431년에 태어난 김종직이 1419년에 세상을 떠난 길재에게 직접 배웠을 리가 없다.

亦怡然不以爲意. 教授學徒, 以孝悌忠信禮義廉恥爲先.”

92) 『인종실록』 권1. 인종 1년 3월 13일(을해). “嗚呼! 光祖之學之正, 其所傳者, 有自來矣. 自少慨然有求道之志, 受業於金宏弼, 宏弼受業於金宗直, 宗直之學, 傳於其父司藝臣淑滋, 淑滋之學, 傳於高麗臣吉再, 吉再之學, 傳於鄭夢周, 夢周之學, 實爲吾東方之祖, 則其學問之淵源類此.”

93) 『중종실록』 권103. 중종 39년 5월 29일(병인). “吾道久東, 亦必有傳. 蓋光祖得之於金宏弼, 宏弼得之於金宗直, 宗直得之於前朝臣吉再, 吉再得之於鄭夢周.”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사람들은 그 이듬해에 곧바로 길재와 김종직 사이에 김숙자를 넣었던 것이다. 어찌든 이것을 계기로 김숙자는 우리나라 도통에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을 찾아보면, 김숙자는 조강지처를 버렸다⁹⁴⁾는 이유로 처벌받거나 비난받은 인물로 기술됨으로써 도통의 전승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⁹⁵⁾ 다만 세종이 집현전과 성균관에 경서經書에 밝고 행실을 닦아서 스승이 될 만한 선비를 천거하라고 했을 때 집현전에서 그를 천거했다는 것으로 보아, 당시에 김숙자가 경서에 밝고 스승이 될 만한 선비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때에도 조강지처를 버린 전력 때문에 비판을 받았고, 이로 인해 사유록師儒錄에서 삭제되는 불운을 겪었다.⁹⁶⁾

그렇다면 정몽주에서 조광조로 이어지는 도통에서 김숙자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김종직이 김숙자의 행적을 기록한 『이준록彝尊錄』에 따르면,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김숙자는 12-13세에 길재의 문하에 나아가 쇠소옹대의 학문, 즉 소학을 배웠다. 15-16세 때에는 향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때 그는 동료들과 멀리 떨어져서 단정히 앉아 글을 읽어서 온종일 그치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공을 공경하며 두려워하였다. 이 당시 김숙자의 공부에 대해 김종직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이로부터 경전經傳에 뜻을 독실하게 하여 주돈이·이정·주희의 학문을 찾아서 위로 공맹孔孟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갔다. 그리하여 중요하고도 복잡 난해한 데에 이르러서는 극도로 깊이 연구하여 반드시 표리表裏를 꿰뚫

94) 김종직은 김숙자가 전처 한씨를 돌려보낸 사건에 대해 김숙자의 부친인 진사공이 한씨 집안의 불미한 일을 문제 삼아 김숙자에게 강요한 것이라고 하였다. 金宗直. 『佔畢齋集』. 『彝尊錄』 下. 「先公事業 第四」. 3b-4a. “先公前娶韓氏, 善山東場人韓變之女也. … 歲戊戌, 我王父進士公, 以事入府庭, 適有稱申云慶者, 與韓變爭訟於官, 指斥變不可與吾同分, 仍勘驗其文券. 王父慚恚而還, 卽強公爲書出韓氏令歸其宗.”

95) 『세종실록』 권21. 세종 5년 7월 4일(임오) ; 『세종실록』 권83. 세종 20년 10월 26일(경축) ; 『세종실록』 권85. 세종 21년 4월 14일(신묘).

96) 『세종실록』 권85. 세종 21년 4월 14일(신묘).

은 다음에야 넘어가니, 여유 있게 나아가고 박博과 약約으로 성취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이르기를, “나의 학문이 아직 부족하니, 나는 당연히 사망에서 배움을 구하리라”고 하였다.⁹⁷⁾

이어서 김숙자는 윤상尹祥이 황간현감黃澗縣監으로 있다는 말을 듣고는, 찾아가서 『주역周易』을 수학하면서 음양변화陰陽變化의 수數와 원시요종原始要終의 설說을 끝까지 탐구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김숙자의 역학易學이 크게 밝아지게 되었고 경학經學을 전공하게 되었다. 훗날 대사성 조용趙庸은 김숙자가 성균관에서 공부할 때 지은 「『주역』 비괘賁卦 단사의象辭義」를 보고 감탄하여 제일第一로 발탁하였다. 이상을 볼 때, 김숙자가 10대 때에 채소응대로 대표되는 『소학』의 학문과 주렴계·이정·주희를 통해 공맹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는 주자학적 경전 공부를 했고, 특히 어릴 때부터 『주역』을 집중적으로 공부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김종직은 김숙자의 교육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선공은 남을 가르치는 일에 게을리 하지 않았다. 아무리 우매하고 노둔한 자일지라도 반드시 이모저모 자세히 타일러서 깨닫게 하고야 말았다.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는 먼저 『소학』을 가르쳐서, 아버이를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스승을 높이고 벗들과 서로 친하게 지내는 데 종사하여 그 근본을 함양하게 한 다음에야 다른 글을 읽도록 허락하였다. … 우리들을 가르칠 때에도 학문을 하는 데 등급을 뛰어넘지 못하게 하였다. 그래서 처음에는 『동몽수지童蒙須知』, 『유학자설幼學字說』, 『정속편正俗篇』을 가르치고 이것을 모두 암송한 다음에야 『소학』에 들어가게 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차례로 『효경』, 『대학』, 『논어』, 『맹자』, 『중용』, 『시경』, 『서경』, 『춘추』, 『주역』, 『예기』를 읽게 하였고, 그런 다음에야 『통감』 및 제사諸史와 백가百家를 마

97) 金宗直, 『佔畢齋集』, 『彝尊錄』 下, 「先公事業 第四」, 2ab. “自是, 篤志經傳, 求濂洛考亭之學, 上溯孔孟之源. 凡肯鑿盤錯, 覃精極慮, 必表裏通透而後過, 紆餘以就之, 博約以成之. 然猶曰吾學未也, 吾當求諸四方.”

음대로 읽도록 하였다.⁹⁸⁾

김숙자는 학생들에게 『동몽수지童蒙須知』와 같은 책을 통해 기초적인 문자 학습을 하게 하였다. 그 뒤 『소학』을 가르쳐 아버이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인륜을 실천함으로써 근본을 함양하게 한 다음에 사서와 오경, 그리고 역사서 등을 차례로 읽도록 하였다. 역시 두드러진 점은 “먼저 『소학』을 가르쳐서, 아버이를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스승을 높이고 벗들과 서로 친하게 지내는 데 종사하여 그 근본을 함양하게 한 다음에야 다른 글을 읽도록 허락하였다”는 것에서 드러나듯이 『소학』 공부와 그 실천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김종직이 『이준록』에서 길재와 김숙자의 교육을 소학의 교육이라는 일관된 관점에서 기술했다는 점이다. 그만큼 김종직의 의식 속에는 소학 교육의 중요성이 각인되어 있었던 것이고, 이는 길재에서 김숙자로 이어지는 교육 내용 및 방법이 그의 의식에 투영된 결과이다. 김종직이 김굉필에게 『소학』을 주면서 “진실로 학문에 뜻을 두었다면 마땅히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⁹⁹⁾고 권고함으로써 『소학』 실천이 사림과 학자들의 학문적·실천적 정체성의 토대가 되는 데는 길재에서 김숙자로 이어지는 소학 교육의 전통이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한편 김종직은 김숙자의 일상생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선공은 천성이 지극히 효성스러웠다. 평소 집에서 아버이를 섬기는 데 있어서는 모든 일을 『소학』의 글대로 따라서 하였다. 신해년에는 고비考妣의 상喪을 당해 애통함이 예禮에 지나쳐서 한 잔의 물도 입에 넣지 않다가, 이

98) 金宗直. 『佔畢齋集』. 『彝尊錄』下. 「先公事業 第四」. 15b-16b. “先公誨人不倦，雖愚駘撲範者，必諄諄叩兩端，令開悟而後已。教童蒙，先入之小學，使之從事愛親敬長隆師親友之間，以涵養其本源，然後許就他書。故其教不煩榷楚，而人樂於學。… 教余輩爲學不可躐等。初授童蒙須知幼學字說正俗篇，皆背誦然後令入小學。次孝經，次大學，次語孟，次中庸，次詩，次書，次春秋，次易，次禮記，然後令讀通鑑及諸史百家，任其所之。”

99) 金宏弼. 『景賢錄』. 『國譯 景賢錄』上. 「事實」. 17쪽.

미 염儼하여 초빈[殯]을 하고 나서야 겨우 죽(粥)과 음료수를 마셨다. 그리고 봉암산에 장사를 지내고 나서는 그대로 묘의 곁에 여막을 짓고 살면서 추우나 더우나 갈의褐衣 한 벌에 짚신 한 켤레를 착용하고, 몸에서는 수질首經과 오대腰帶를 벗지 않았으며, 거적자리를 깔고 나무토막을 베고 눕고 거친 음식을 먹으면서 끝까지 조금도 헤이함이 없었다. 그리고 봉암산과 생송리生松里 집의 거리가 겨우 10 리였으나, 3년 동안에 한 번도 집에 오지 않았고, 삭망朔望이나 절일節日의 제전祭尊 때는 우리 모부인母夫人께서 산으로 가셔서 오직 그 자리에서 서로 만나볼 뿐이었다. 그 당시 풍속이 초상을 당하면 불교의 법에 귀의하는 것이 마치 달리는 파도처럼 휩쓸려가서, 비록 유가儒家라고 하는 자들도 그 폐습을 면치 못하였다. 그러나 공은 유독 확고부동하여 염儼·습襲·우虞·부紲·연練·상祥 등의 의식을 주자의 예禮에 의거하여 알맞게 거행하였다. 그리고 남에게 말할 적에는 반드시 이르기를, “내가 감히 스스로 세속과 달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선정先正 길간의吉諫議와 김부사金府使의 가르침을 따른 것일 뿐이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향리의 사군자士君子들이 공의 슬퍼함이 지나치면서도 예를 넘지 않음을 보고 모두 탄복하였다.¹⁰⁰⁾

여기에 기술되어 있는 김숙자의 삶의 태도는 길재의 그것과 매우 닮아 있다. 지극한 효성, 『소학』 실천, 『주자가례』 실천 등이 그것인데, 이를 한 마디로 도학적 실천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숙자는 길재吉再와 김치金峙의 가르침을 따른 것일 뿐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¹⁰¹⁾ 길재에서 김숙자로 이어지는 도학의 전승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100) 金宗直. 『佔畢齋集』. 『彝尊錄』 下. 「先公事業 第四」. 5ab. “先公天性至孝. 凡家居事親. 皆從事小學書. 歲辛亥. 丁考妣憂. 哀毀過禮. 勺水不入口. 既斂而殯. 惟歛粥飲漿. 塌于鳳巖山. 仍廬塋側. 寒暑一褐一履. 身不脫經帶. 寢苦枕木. 蔬糲以食. 而終始不少懈. 鳳巖距生松里第僅十里. 三年不一到門. 若朔望節日之奠. 則我母夫人往于山. 惟於位相見耳. 時俗有喪. 則歸依浮屠法. 若奔波然. 雖號儒家. 亦不免焉. 公獨確然. 斂襲虞祔練祥. 按朱子禮而節行之. 語人則必曰. 吾非敢自異乎俗. 先正吉諫議. 金府使之教也. 鄉之士君子. 見其哀有過而禮無逾. 翕然嘆服.”

101) 金峙는 『동유사우록』에 길재의 문인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선산 사람으로 벼슬이 김해 부사에 이르렀다. 김숙자와 이웃해서 살면서 김숙자를 가르치기도 하였다. 金宗直. 『佔

보인다.

이어서 김숙자와 김종직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종직은 김숙자의 아들이므로 김숙자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김종직이 김숙자에게 이어받은 학문 또는 사상은 무엇일까? 첫째는 앞서서도 반복해서 언급한 것처럼 『소학』 실천이다. 김종직이 그의 『이준록』에서 길재와 김숙자의 교육에서 주목했던 것이 소학의 가르침이었고, 그 역시 제자들에게 『소학』의 중요성을 역설함으로써 『소학』 실천이 사림파의 실천적 정체성으로 자리 잡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둘째는 성리의 공부이다. 김종직은 『이준록』에서 어린 시절 김숙자가 “경전經傳에 뜻을 독실히 하여 주돈이·이정·주희의 학문을 찾아서 위로 공맹孔孟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갔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김종직은 성균관에서 공부하던 시절에 김숙자의 지적을 받고 리학理學 공부에 매진했고, 그 결과 무슨 시제試題이든 제출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¹⁰²⁾ 훗날 김종직은 “성리의 학문을 강구하여 그 봉우와 향당에 권유한다면, ... 또 한 고을이 감화되어 모두 효제충신의 행실에 힘쓸지 어찌 알리오”¹⁰³⁾라고 하여 성리학 공부를 강조하기도 하였다. 비록 김종직이 성리설의 영역에서 두드러진 업적을 남긴 것은 아니지만 김숙자의 권유로 성리설 공부를 한 것은 확실하다.

셋째는 의례 공부에 대한 강조이다. 김종직의 기록에 따르면, 김숙자는 누구나 『예기』를 읽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평상시에 상례·제례 등의 예법을 강구해 두지 않으면 급한 일을 당함에 미처서 아득히 아무 것도 아는 것이 없게 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사람들이 불교에 빠지고 무당에게 미혹되어 신중愼終·추원追遠의 의리를 잃어버리는 것 역시 평소에 예법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¹⁰⁴⁾

畢齋集』. 『彝尊錄』上. 「先公師友 第三」. 22a. “金時, 同府人, 官至金海府使. 與迎鳳里第比隣. 己亥年, 以知司諫參試. … 已上皆先公恩門及嘗所受業學文者.”

102) 金宗直. 『佔畢齋集』. 『彝尊錄』下. 「先公事業 第四」. 17b.

103) 金宗直. 『佔畢齋集·文集』 권1. 「與密陽鄉校諸子書」. 25a.

이상을 종합해 보면 김종직은 자신의 학문적 계보가 길재에서 부친인 김숙자로부터 이어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는데, 그 학문적 전통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소학』을 경전 공부에 앞서 해야 할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공부로 여겼다. 이를 『소학』 공부론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사서·오경과 같은 경전 공부를 하되 이정·주희의 뜻에 부합하도록 애썼다. 이를 리학理學 공부론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주자의 『가례』에 따른 예의 실천을 중시하였다. 이를 『가례』 실천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길재-김숙자-김종직으로 이어지는 공부의 전통은 『소학』 실천, 리학理學 공부, 『가례』 실천으로 모아진다. 이와 같은 학문 경향은 사장학에 경도되어 있던 당시의 일반적인 학문 풍토와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것으로 그 이후 사림과 학문의 중요한 특징으로 자리 잡게 된다.¹⁰⁵⁾

이렇듯이 김숙자는 길재의 학문을 김종직에게 전해줌으로써 사림과의 도학이 형성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물론 김종직이 없었다면 조선 도학사에서 김숙자의 존재는 매우 미미했을 것이다. 그만큼 조선의 도학이 형성되는 데 김종직의 역할이 컸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러한 평가는 구미 지역의 도학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선산의 도학적 토양은 김종직의 동지인 김지경金之慶·정석견鄭錫堅 등에 의해서 마련되었다.¹⁰⁶⁾ 정석견의 형으로서 처향妻鄉인 선산으로 이주해 살았던 정철견鄭鐵堅은 절개가 굳고 행실이 높다는 이유로 김굉필과 더불어 은일지사隱逸之士로 천거를 받았다.¹⁰⁷⁾ 정철견의 아들이자 선산의 도학자로 유명한 정봉鄭鵬(1467~1512)은 김굉필의 문하에 나아가 배웠으며, 그의 학문은 또다시 박영

104) 金宗直. 『佔畢齋集』. 『彝尊錄』 下. 「先公事業 第四」. 17a.

105) 길재-김숙자-김종직의 학문적 수수관계에 대해서는 김용현. 2011. 「점필재 김종직과 그 문생들의 도학사상」. 『한국학논집』 45.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157-160쪽 참조.

106) 김성우. 2009. 「15세기 중·후반~16세기 도학운동의 전개와 송당학파의 활동」. 『역사학보』 202. 20쪽.

107) 『성종실록』 권286. 25년 1월 3일(기사).

英(1471~1540)으로 이어지면서 이른바 송당松堂학과가 탄생하기에 이른다.¹⁰⁸⁾

이렇게 보자면 구미 지역의 도학은 길재에서 기원하여 김숙자-김종직-김굉필-정봉-박영으로 이어지는 셈이고,¹⁰⁹⁾ 그만큼 길재가 구미 지역의 도학 형성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매우 크다. 구미 지역의 도학에 끼친 길재의 영향은 이 지역 유생들의 뜻에 따라 길재를 모신 금오서원과 오산서원이 건립된 것에서도 확인된다. 특히 금오서원에 김종직·정봉·박영·장현광이 추가로 배향된 것은 길재의 학문이 김종직-정봉-박영을 거쳐 당대 영남 최고의 학자 가운데 한 명인 장현광(1554~1637)에 이르렀다는 것을 함축한다.¹¹⁰⁾

V. 맺음말

길재가 조선의 도학사에서 갖는 의미는 절의의 실천과 도통의 전승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¹¹¹⁾ 길재는 세종 때 간행된 『삼강행

108) 朴英, 『松堂集』 권3, 「道統相承次第錄」(盧景任). 1a. 「道統相承次第錄」은 盧景任의 『嵩善志』를 인용한 것임. 김굉필-정봉-박영으로 이어지는 선산 지역의 도학적 전통에 대해서는 2016년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사단법인 여현학연구회 공동기획학술대회 자료집인 『낙중학과 조선 초 구미 지역의 유학』에 수록된 권상우의 「신당 정봉 도학의 형성과 전개」, -안상도와 대학을 중심으로-,와 장윤수의 「송당 박영의 학풍과 성리학 적 사유」 참조.

109) 김학수는 “장현광의 학통은 오현계승론, 회퇴계승론, 불유사승론 등 다양한 입장이 존재”한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장현광이 어려서 사사한 盧守誠이 박영의 문인임을 근거로 정몽주-길재-김숙자-김굉필-정봉-박영-노수함-장현광으로 이어지는 학통 설정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김학수, 2007, 「17세기 영남학과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07-108쪽.

110) 장현광의 글 가운데 길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는 「治隱先生文集跋」·「吳山書院重建祠宇上樑文」·「治隱竹賦」·「治隱先生墓祝文」 등이 있다.

실도』의 「충신도」에 ‘길재의 곧은 절의’라는 제목으로 수록됨으로써 그 이후 많은 사람들에게 불사이군의 절의를 지킨 충신으로 존경을 받았다. 길재가 조선 왕조에서 절의의 상징으로 자리매김 된 것은 고려 왕조에 대한 충절을 절의 또는 의리라고 하는 주자학적 가치의 실천으로 일반화하고, 이를 통해 조선 왕조의 기반을 굳건히 하려는 통치자들의 내밀한 의도와 무관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직, 낙향, 그리고 출사 거부로 이어지는 길재의 일관된 정치적 행보는 그가 일신의 안위와 영달보다는 절의라는 도학적 덕목을 더 상위의 가치로 내면화했음을 말해 준다.

뿐만 아니라 길재는 종종 시대에 이르러 정몽주의 학문을 이어받아 김숙자·김종직을 거쳐 김굉필에게 이어준 인물로 부각되었다. 이처럼 길재가 도통의 계보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은 기묘사림들이 정몽주로부터 시작되는 도통을 통해 자신들의 학문적 권위를 확보하기 위한 의도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길재가 사림과의 도학이 형성되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그가 도통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이다. 김숙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길재가 김숙자를 비롯한 제자들을 통해 후대에 전한 학문의 실체는 무엇일까? 앞에서 살핀 것처럼 길재는 후학들에게 경전과 역사서를 가르치되 정주程朱의 뜻에 따랐다. 그는 또한 정좌靜坐와 같은 존양의 공부와 『주자가례』의 예법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후학들에게 도학적 실천의

111) 길재는 후인들에게 절의를 지킨 사람인 동시에 도학의 발전에 공을 세운 사람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 이중적인 의미는 정조가 직접 쓴 다음의 제문에서 잘 드러난다. “우뚝 솟은 저 금오산 그 높이 천 길이라/ 그 가운데 큰 선비 있어 몸은 도에 맡기었네/ 곧은 절개 뜻 못 꺾고 낭관으로 물렸구려/ 용이 일어나는 때를 만나 기린같이 몸을 감추었네/ 두 번 불러 겨우 왔다 한 번 읊하고 물러갔네./ … / 서산에서 고사리 케고 동문 밖에 오이 심고/ 구름 가에 높이 나는 기러기 자고 깨면 노래하네./ … / 내 진작 흠도함은 충충만이 아니네/ 회헌晦軒과 포은이 도를 동으로 가져와서/ 못 선비를 창도함이 정자와 주자라면/ 길재 공은 그 사이에 나예장羅豫章과 이연평李延平이네./ 사문斯文的 표본이고 정학正學의 연원이라. …” 吉再, 『治隱先生續集』 卷中, 「賜祭文」(正祖), 3b.

모범을 보였다. 이는 길재가 주자학에 의거하여 후학을 가르쳤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길재의 교육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의 교육이 다분히 『소학』적 성격을 지녔다는 점이다. 김종직이 언급하고 있듯이 길재의 교육은 “쇄소응대灑掃應對의 절차로부터 도무영가蹈舞詠歌에 이르기까지 다 가르치되, 등급을 뛰어넘지 못하게 하였다”는 특징이 있었다. 이와 같은 교육은 주희가 「소학제사」에서 언급한 소학 교육의 방법과 일치한다.

김숙자의 삶의 태도 역시 길재의 그것과 매우 닮아 있다. 그에게 보이는 지극한 효성, 『소학』 실천, 『주자가례』 실천 등은 길재에게서도 동일하게 발견되는 것으로 이를 한 마디로 도학의 실천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숙자 스스로 길재吉再와 김치金峙의 가르침을 따른 것일 뿐이라고 밝힌 데서 알 수 있듯이 김숙자의 실천과 학문은 길재에게 큰 영향을 받았다. 또한 김숙자는 학생들에게 『소학』이 학문의 근본임을 강조했고, 이와 같은 『소학』 실천을 중시하는 사교는 김종직을 거치면서 사림들에게 광범위하게 확대되었다. 그 결과 『소학』이 훈구 세력에게 불온한 서적으로 인식될 만큼 『소학』 실천은 사림파의 실천적 정체성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된다. 따라서 정몽주의 조학이 길재를 거쳐 김숙자-김종직-김굉필로 이어지고 마침내 조광조에 이른다는 조선 주자학의 도통론이나 김굉필 이후 정봉-박영으로 이어진다는 선산 주자학의 도통론은 근거가 없지 않다.

참고문헌

- 吉 再. 『治隱集』.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야은집』. 도문사.
- 朴天翊. 『松隱集』. 민족문화추진회.
- 金宗直. 『佔畢齋集』; 『국역 점필재집』. 민족문화추진회.
- 金宏弼. 『國譯 景賢錄』. 한훤당선생기념사업회.
- 南孝溫. 『秋江集』; 『국역 추강집』. 민족문화추진회.
- 李 滉. 『增補 退溪全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 朴世采. 『東儒師友錄』. 불함문화사.
- 『국역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 권상우. 2016. 「신당 정봉 도학의 형성과 전개」 -안상도와 대학을 중심으로-. 『낙중학과 조선 초 구미 지역의 유학』(계명대 한국학연구원 · 여현학연구회 학술대회 자료집)
- 김성우. 2009. 「15세기 중 · 후반~16세기 도학운동의 전개와 송당학파의 활동」. 『역사학보』 202. 역사학회.
- 김용현. 2015. 『야은 길재, 불사이군의 충절』. 예문서원.
- _____. 2011. 「조선전기 사림과 성리학의 전개와 특징」. 『국학연구』 19. 한국국학진흥원.
- _____. 2011. 「점필재 김종직과 그 문생들의 도학사상」. 『한국학논집』 45.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 김학수. 2007. 「17세기 영남학과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윤수. 2016. 「송당 박영의 학풍과 성리학적 사유」. 『낙중학과 조선 초 구미 지역의 유학』(계명대 한국학연구원 · 여현학연구회 학술대회 자료집)

- 최영성. 2011. 「야은 길재와 그 문생들의 도학사상」. 『한국학논집』 45.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 황지원. 2014. 「구미(선산) 지역 유학의 전개와 특징」. 『민족문화논총』 58.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한충희. 1997. 「선산과 조선전기 성리학 및 사림파」. 『한국학논집』 24.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6. 11. 20. 접수: 2016. 12. 22. 수정: 2016. 12. 22. 채택)

김용현

고려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최한기의 서양 과학 수용과 철학 형성」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양대학교 철학과 교수이다. 『조선 성리학, 지식 권력의 탄생』, 『야은 길재, 불사이군의 충절』, 『해강 최한기』(편저), 『실학의 철학』(공저) 등의 저서와 「탈근대적 주체의 모색과 유가 사상」, 「조선조 유학의 이론 연구-성리학적 이론에서 실학적 이론으로의 전환」 등의 논문이 있다.

E-mail : yong@hanyang.ac.kr